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	낙농정책 이슈&진단		미래낙농을 선도하는 Think Tank! 낙농정책연구소
제공자	낙농정책연구소장 조석진	제공일 :	2018년 7월 30일 (월)
담당자	서미랑 연구원	이메일	kdbfa@chol.com
전화	(02)588-7055～6	팩스	(02)584-5144

캐나다의 국내 낙농을 지키기 위한 낙농정책

- 해외제품 높은 관세율로 국내 진입 방어 -

❑ 캐나다의 낙농제도는 기본적으로 ①공급관리, ②가격지지, ③수입통제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, 가장 완벽한 낙농쿼터제라 할 수 있다. 캐나다의 낙농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○ 1965년 원유수급불균형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캐나다낙농위원회(CDC)를 설립하였다. 그에 따라 1967년 보조금수급가능쿼터(SEQ)를 도입하였지만, 미참여농가의 발생으로 공급조절에 실패하였다. 그 후 1970년에 CDC산하에 설립된 우유공급관리위원회(CMSMC)에 의해 1974년에 가공유쿼터(MSQ)제로 전환되었다. 그에 따라 CMSMC는 낙농산업의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, CDC의 권고를 바탕으로 매년 MSQ를 설정하고, 설정된 MSQ를 초과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.

○ 지난 8년간(2007~2015) 캐나다의 가공원료유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.8%이며, 가공원료유생산과 MSQ는 각각 1.9%, 1.4%의 증가율을 나타냈다. 따라서 캐나다는 NAFTA 하에서도 유제품의 수요증가를 대부분 국내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.

<표> 캐나다의 MSQ(가공유쿼터) 추이*

연도**	가공원료유 생산량	MSQ 총량***	캐나다의 가공원료유 필요량
2007-2008	182.21	183.75	179.57
2008-2009	179.66	182.08	180.14
2009-2010	183.39	181.80	183.82
2010-2011	186.87	188.73	189.49
2011-2012	196.18	193.78	187.86
2012-2013	198.85	195.03	191.13
2013-2014	197.16	198.70	200.84
2014-2015	211.58	205.68	207.64

* 백만kg(유지방기준)
** 7월 31일 기준
***낙농개혁프로그램(Dairy Innovation Program)을 포함한 가중평균

❑ 원유공급관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국원유출하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며, 운영주체는 CMSMC다. CMSMC는 매년 버터수요를 기준으로 가공원료유의 생산목표인 MSQ를 각 주정부 별로 설정하고, 주정부는 이를, 농가별로 배정한다. MMB는 쿼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낙농가에게 허가증(license)을 발행하며, 허가증이 없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다. 동일 주 내에서 쿼터매매가 허용되어 있으며, MMB가 중개역할을 한다.

❑ CDD는 매년 8월 1일 '가공원료유의 목표가격' 과 '추정가공업자마진', '버터와 탈지분유의 지지가격(정부매입가격)' 을 설정한다. 또한, 각 주별 MMB는 음용유 및 크림용 원유(Class 1)와 치즈, 요구르트, 아이스크림 등의 생산을 위한 신선유제품용 원유(Class 2)의 쿼터 및 가격을 관리한다. 원유가격은 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, 유지방, 유단백, 무지고형분 등 성분함량과 우유생산비 등을 고려한 성분유가(component pricing)에 의해 결정된다. 이 과정에서 MMB는 지역별 원유의 일원집유를 통한 공급독점권을 행사하며, 유업체에 대한 다원판매와 수송도 담당한다. 개별농가에 대한 유대는 종합유가(pooled price)의 형태로 매월 1회 정산된다.

❑ 수입제한을 위해서는 유제품의 국내수요를 국내생산에 의해 충당한다는 전제하에 원유의 공급관리를 실시하고 있다. 237% ~ 351%의 고율관세를 통해 국내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수입을 철저히 차단해 왔다. 그러나, 최근 미국과의 NAFTA 재협상과정에서 유제품에 대한 수입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.

○ 즉, 그동안 NA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고, 치즈와 요구르트 생산에 사용되는 미국산 한외여과우유(Ultrafiltered Milk:UM)가 무관세로 캐나다에 수출되었다. 이에 캐나다생산자단체는 국경조치의 허점을 개선하고, 미국산UM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, 새로운 저가의 가공원료유등급을 신설하였다.

❑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, "캐나다의 낙농쿼터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, 무엇보다 유제품에 대한 확고한 국경조치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" 며,

○ "최근 미국으로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던 한외여과우유(Ultrafiltered Milk:UM)의 수입억제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것은, 캐나다로서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는 미국 낙농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, 금후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" 라고 전망하였다.

"끝"